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4년 4월 제 133-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가난한 환자는 내게 하느님의 선물이었다”

선우 선생 16주기 맞아 추모미사와 전기 출판기념회 거행



서울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거행된 선우 선생 16주기 추모미사 장면. 주례를 맡은 서울대교구 구요비 총대리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11명이 공동 집전했다.

본원 선우경식 초대원장 16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는 추모 미사와 전기 출판기념회가 4월 16일 오후 서울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열렸다.

1부 추모미사와 2부 출판기념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구요비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11명과 여러 수도회 수도자, 봉사자와 후원자, 유족 대표, 전기 집필자, 요셉나눔재단법인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사 주례를 맡은 구요비 주교는 강론에서 “선우 선생의 전기 출간을 통해 그분의 삶과 영성을 되살펴 보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주교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면서 의사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잊힌 거리의 노숙인들, 주민등록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선우 선생이야말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숨어 계신 성인의 모습이

133-1호
주요
소식



1

선우 원장 추모미사 & 출판기념회



8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12

봉사자 코너



17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

국성회 소식





사진 왼쪽부터, 미국에서 딸 가족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선우 선생 여동생 선우명식(헬레나)·서길원(알베르토) 부부, 추모미사를 집전한 구요비 주교와 이문주 본원 2대원장신부,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 등 사제단.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들(오른쪽부터 저자 이충렬 작가, 고영초 병원장, 선우명식 씨, 구요비 주교, 이문주 신부, 신완식 4대원장, 김정식 봉사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선우 선생님의 16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분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우리 시대 많은 의료인들과,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론문 참조]

“선우 선생, 현대에 가장 돋보이는 신앙의 모범”

2부 출판기념회는 선우 선생의 헌신적 삶을 소개한 짧은 영상 상영에 이어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의 인사말과 경과보고, 집필자인 이충렬 작가에 대한 감사패 수여 그리고 내빈 인사와 축가,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인사말에서 2년 전 요셉의원에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선우 선생 기념사업을 생각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기 출판, 선우 선생과 관련한 증언 녹화, 유물과 유품 기록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새로 봉사 오시는 선생님 중에는 선우 선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 그분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하고, “박해시기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들이 나왔고, 박해 이후에는 훌륭하게 사신 성직자와 수도자가 많이 계시지만 현대에 들어와 평신도 중에서는 선우 선생님이 가장 돋보이는 모범 중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 이번 전기 출판을 통해 선우 선생의 영성과 헌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깊은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분”

이번 전기를 집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이충렬 작가는 소감 발표에서, “이번 작업은 선우경식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신 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셉의원을 시작하고 운영하셨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이어 “독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대화체가 많은 소설적 형식을 취해 첫 페이지부터 비교적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을 통해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과 정신이 우리 사회에 보다 널리 퍼져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는 데 선우 선생님의 삶이 하나의 밑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충렬 작가의 작품 구성과 소감 발표에 이어 이문주 원로신부와 유족 대표인 선우명식 씨, 김정식 치과봉사의 그리고 고영초 병원장이 각각 축사 겸 선우 원장에 대한 회고담을 전했다.

요셉의원 지도신부였다가 선우 원장 선종 뒤 10년 동안 제2대 원장을 맡아 병원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이문주 원로신부는 “선우 선생님은 성서 말씀을 통한 각별한 영성적인 삶을 사셨다”고 소개했다. 신약 성경이 담긴 작은 포켓 성경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꺼내 읽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는 것. 이같은 신심은 행동으로 나타났다.

“가끔 같이 전철을 타고 갈 때 보면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손을 내밀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요. 500원짜리 동전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건네주곤 합니다. 또 어려운



구요비 주교가 '의사 선우경식' 전기를 집필한 공로로 이충렬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왼쪽). 구요비 주교와 인사하는 유족 대표 선우명식(헬레나) 씨.



사람이라든가 아는 이를 찾아갈 때 그냥 빈 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하다 못해 토마토 한 봉지라도 사가서 선물을 합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 당신이 도와줘야 할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가 실천하는 분이었어요.”

“경식 오빠의 꿈과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선우 선생의 여동생인 선우 명식(헬레나) 씨는 “요셉 오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16년이 됐는데, 지금도 오빠를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애뜻함을 나타냈다. 명식 씨는 “오빠의 전기가 나와서 너무 반갑고 작가님께 특별히 감사드

린다”며, “책이 집필되는 동안 저희가 많이 협조도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명식 씨는 “요셉 가족 여러분께 선우 오빠의 꿈과 소망이 변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요셉의원과 함께 마음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1987년 8월 요셉의원이 신림동에서 처음 문을 연 뒤 실제 진료는 그해 11월 11일부터 시작됐다. 1989년 3월 발행된 요셉의원 소식지 창간호에는 당시에 봉사의 33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33명 중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봉사를 나오고 있는 김정식 치과봉사의(81)는 “신림동에서부터 선우 원장과 같이 온갖 어려움을 함께 해온 시절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선우 원장을 생각하고, 또 요셉의원에 나와서 선우 원장 사진을 보면 이분이 돌아가신 지 16년이 지났지만 낯설지가 않고 늘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37년 동안 봉사를 해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선우 원장도 하늘에서 보고 ‘정식 형님 고맙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추억과 감사와 신앙의 향기 간직하며

고영초 병원장은 선우 원장 선종 2년 전에 발병한 뇌혈관 질환 치료를 맡아 선종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봤던 상황을 회고하고, 참석한 내외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고 원장은 “선우 원장님을 처음 진료하게 된 때는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06년 5월이었다”며, “당시

자동차 시동키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말이 안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재직하던 병원으로 오시게 해 4시간 만에 막힌 뇌혈관을 뚫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8년 4월 16일 새벽 선우 선생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한다는 전갈을 받고 응급실로 모셔 살펴보니 이미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

“당시 위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뇌 사진을 촬영해보니 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져 거의 선종하진 상태여서 장례를 위해 성모병원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선우 선생의 마지막 투병을 지켜본 고 원장은 지난해 3월 신완식 원장의 후임으로 요셉의원 제5대 병원장에 취임해 선우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선우 선생에 대한 추억과 감사와 존경이 뭉뚱 향내처럼 파밀리아 채플에 가득 퍼졌던 이번 4월의 추모미사와 출판기념회는 소프라노 이진희 경기대 겸임교수의 축하 ‘잔향’(이연주 시/윤학준 곡) 연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연초록 마음 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머나먼 길 달려와 토해내던 붉은 날숨 다시 선 그 자리에 그대 숨결 가득하다...’



축가로 현대 가곡 '잔향'을 열창하는 소프라노 이진희 경기대 겸임교수.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에즈라 8,31). +

+ 이번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 추모미사 참석 사제 : 구요비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이문주 원로신부, 박선용(시복시성위원회 부위원장), 조정래(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조성품(명동대성당 주임), 윤병길(사회사목국 국장), 현재봉(수원교구 목감성당), 최광희(문화홍보국장), 하성용(사회사목국 부국장), 장경근(필리핀요셉의원 2대 원장, 현재 등촌1동 부주임), 이영중(서울국제선교회 볼리비아 선교) 신부

— 내빈 : 신완식 이사(요셉의원 4대 병원장), 이상수 이사(변호사), 권이상 이사, 김의석 이사(노무사), 박찬순 이사(국성회 후원회장), 윤호중 이사(가톨릭대의대 교수), 안재홍 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김문태 평단협 수석 부회장, 이동진 전 외무부대사(‘착한 이웃’ 발행인), 이옥정 막달레나 공동체 대표, 김혜경 전 난곡희망협동조합 대표,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임만택 라파엘 크리닉 후원회장, 김군자 교수(음악치료)

구요비 주교 추모미사 강론

“우리 안에 숨어계셨던 한 성인의 헌신을 기립니다”

오는 4월 18일은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선우경식 요셉 원장님의 선종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선우경식 선생님은 1987년 요셉의원이 설립될 때부터 2008년 4월 18일 돌아가실 때까지 21년간 요셉의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오롯이

바치신 분입니다. 저하고 선우 원장님과의 인연이라면 동시대를 같이 살아오면서 당시 저는 노동사목을 하며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지향하는 프라도 사제회 초창기를 개척하던 때여서 동병상련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했었고, 선우경식 선생님께서는 제가 사제로서 잘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선종하기 2년 전쯤인가 제가 신학교 영성 지도신부로서 사제 양성에 봉직하고 있을 때 제가 입학한 신학생들의 피정 지도를 선우 선생께 부탁드렸고, 선우 선생님께서 신학교에 오셔서 3, 4일 정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한국 교회 안에서 사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는 강의를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되



돌아가는 환자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젊은 시절에 돈 안 받는 의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짐을 평생 성실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선우 원장님은 요셉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만 진료하신 것이 아니라 병원까지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찾아 다리 밑이며 역 주변과 시장, 지

방의 외딴 농촌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본인도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환자를 살폈고, 행려병자든 어떤 환자든 항상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술 취한 환자들에게 욕을 듣고 먹살을 잡히시는 일도 다반사였지만 원장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이가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시고 63세로 돌아가시기까지 선우 원장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나눔을 베풀셨습니다.

선우 원장님이 선종하실 때까지 20년 넘게 요셉의원을 이끈 동력에 대해 그분과 교류해 온 분들은 그분에게는 타고난 정의감과 책임감, 그리고 예수의 작은 형제회 재속회원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정신은 선우경식 원장님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진료하고 보듬는 영적 밑거름이



Interview

《의사 선우경식》 저자 이충렬

‘자필’ ‘성찰’에서 인간적 고뇌 ‘발견’

1 선우경식 선생 전기 집필을 마치셨는데,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책을 쓰셨습니까?

이번 작업은 선우경식 선생님께서 의사가 된 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요셉의원을 시작하고 운영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대화가 많은 소설적 형식으로 썼습니다.

2 집필 구성과 자료 수집, 실제 원고 집필 등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을 소개해 주시지요.

자료 수집부터 출간까지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전기 집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 작업은 작가가 주인공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들



되었던 듯합니다. 선우 선생님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믿음을 자주 표현하셨고, 하느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나 직원들이나 이렇게 적은 월급에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없다고 고백 하셨습니다. 선우 선생님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올 우리 이문주 신부님께 요셉의원 원장직을 부탁드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 저는 이 환자들에게 빵을 쫓는데 신부님은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의 이같이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또 더욱 널리 알리고 나누기 위해 그분의 삶을 담아낸 전기를 출간한다는 소식을 존경하는 홍근표 바오로 신부님을 통해 듣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전기에는 선우 원장님의 인간적인 고뇌, 또 가난한 환자에 대한 연민과 애정, 그들을 위한 투신의 과정, 또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고군분투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전기 출간을 통해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과 영성을 되살펴 보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전기 집필을 위해 애써주신 이충렬 작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려 노력하는 요셉나눔재단과, 또 요셉 의원에서 인술을 펼쳐주시는 고영초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 봉사인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특별히 서울대교구의 시복 시성 위원회를 맡고 있는 교구장 대리로서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을 오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문헌을 떠올립니다. 이 문헌은 현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느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완덕의 부르심과 거룩함, 성성의 부르심에 관해서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인 성인 성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 있고,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분들 안에서 이 시대의 성인들을 만나고 발견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하고 동시대를 살면서 의사 선생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잊힌 거리의 노숙인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호적등본도 주민등록증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숨어 계신 그런 성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우 선생님의 16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분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우리 시대의 많은 의료인들과,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서울대교구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이 대장정에 함께하겠습니다. +



선우 원장이 생전에 입던 진료복



의 증언이나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면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썼던 다른 분들의 전기에 비해 선우경식 선생님 전기가 어려웠던 점은,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중 생존해 계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복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책 안에 대화로 풀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정확하게 복원하기 어렵고, 자칫 생존해 계시는 분께 불편을 끼칠 수 있어 포함시키지 못한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3 평소 알고 있던 선우 선생과, 실제 자료 수집과 집필을 하면서 새롭게 알거나 깨닫게 된 사실도 있습니까?

그동안 전기를 쓰면서 느낀 사실은, 훌륭한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생전의 여러 인터뷰나 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 게 신림10동에 있던 사랑의 집 봉사자에게서 걸려온 왕진 요청 전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요셉의원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

출판기념회 인사말 & 경과 보고

‘가난한 이들의 벗이자 신앙의 모범을 기리며’

오늘 선우경식 선생님 16주기 추모미사와 전기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가장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선우 선생님이 혹시 이 모임을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겸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리시는 분이려 좀 불편해 하

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우 선생님의 그와 같은 성품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분이 선우 선생님의 삶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를 꼭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2년 전 요셉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꼽은 것이 기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분이 오랫동안 모아놓으셨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상으로는 선우 선생님이 떠나신 지 벌써 15년 남짓해서 추가로 자료를 모으고, 새로 봉사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선우 선생님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 선우 선생님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마련이 시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선우 선생님을 기억하시거나 오



래 마음에 담아두셨던 분들의 증언을 담아놓아야겠다고 생각해 염수정 추기경님과 최창무 대주교님, 김윤희 주교님, 강우일 주교님을 포함해 여러 신부님들과 수녀님, 수사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과 봉사자 선생님들, 학교 동창분들, 상처받고 힘든 시기를 거친 환자분들을 만나 인터뷰하

고 녹취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기 출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전기 집필자로 이충렬 작가님을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충렬 작가님은 교회 밖에서도 잘 알려지신 분이지만 특히 교회 내에서도 김대건 신부님과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전기를 쓰신 분이시죠. 특히 김 추기경님 전기를 쓰셔서 추기경님과 우리 선우 선생님과 관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 만나뵙고 제안을 드렸더니 다행히 바로 수락하셨습니다. 이어 이충렬 작가님 도움으로 위즈덤하우스와 출판계약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충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판 계약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선우 선생님은 교회 안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지만, 가난

는 이 부분만으로는 요셉의원 설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사랑의 집’ 왕진 이전의 과정들을 살살이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83년 강원도 정선에 있는 성프란치스코의원에서 근무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선우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으나 다행히 그 병원을 운영했던 수녀원에 당시 선우 선생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사진과 함께 남아 있었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 선우 선생의 어떤 점이 의사로서 귀감이 될까요?

선우경식 선생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의학을 이용하겠다”라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우 선생의 그 노력이 바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신의 여정에서 선우 원장 자신의 인간적 고민도 있었겠지요?

저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선우경식 선생님이 선장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원은 각 분야의 전문의, 간호사, 약사, 주방, 청소, 목욕, 이발 등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직원들의 수고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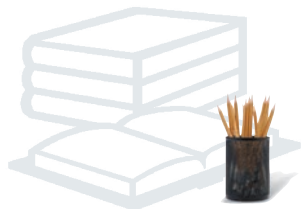


한 이들을 위한 헌신은 교회를 넘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나 출판사나 교회 색채가 열은 버전도 병행해서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교회 밖의 출판사를 택하기도 했구요.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 책 앞의 추천사에 주교님들이 여러 분 등장하시면 일반인들이 너무 종교색이 짙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서 처음에는 두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이 주신 원고를 우리도 보고 출판사에서도 검토해 보니 도저히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이 보여주신 헌신은 신앙을 따로 떼어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지요. 그만큼 선우 선생님의 생활 속에는 신앙이 짙게 배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따로 일반 생활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우 선생님은 묵주 기도도 하루에 40단씩 매일 바치셨다고 합니다.

성서백주간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요셉의원에서 매일 드리고 있는 미사와, 수도회도 아닌데 일과 시작 전

에 매일 올리는 성무일도 기도도 시작이 선우 선생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가난하고 또 성직자나 수도자도 아닌데 혼자 지내시면서 그렇게 모든 가난한 이들을 존중해 주신 분이지요. 그래서 선우



겉에서 볼 때는 작아 보여도 내실은 엄청나게 큰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원을 ‘작지만 큰 병원선과 같은 병원’이고, 선우경식 선생님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환자들이라는 작은 섬’을 향해서 파도를 헤치고 가는 병원선의 선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배를 수리해야 할 때도 있었고, 새로 배를 장만해야 할 때도 있었으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인간적 고민이 있었을지... 이번 책에서는 그런 인간적 고민에 대한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자필로 쓴 ‘성찰’이 원문 이미지로 소개됩니다. 그걸 보시면 선우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기에 가까운 이 글을 책에 소개하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신 요셉의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전기를 마무리하시고 특별한 소감이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의사 선우경식》을 통해 선우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 남긴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파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인세는 전액 요셉나눔재단에 기부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구입해주시는 독자님들은 정가의 10%를 요셉나눔재단에 기부하는 기부자가 되시는 것이니,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선생님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 하느님의 복음 말씀대로 사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도로부터 시작돼 박해시기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들이 나왔고, 박해시기 이후에 훌륭하게 사신 성직자와 수도자가 많이 계시지만, 현대에 들어와 평신도 중에서는 선우 선생님이 가장 돋보이는 모범 중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그분의 전기 출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다음 달 5월 21일에는 가톨릭의대와 공동 주최로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선우 선생님의 업적과 영성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심포지엄 개최 역시 더 많은 분들에게 선우 선생님의 정신이 널리 알려져 제2의, 제3의 선우경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심포지엄에도 적극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멀리 미국에서 유족 대표로 오신 선우명식 헬레나 가족분들과 외부 손님 여러분, 참석해주신 법인 이사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봉사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신부

재단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선우 선생의 다양한 발자취, 온라인으로 되살펴본다’



우리 재단의 디지털 아카이브인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아카이브> 웹사이트가 1년여 간의 작업 끝에 지난 3월 말 일반에 공개됐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문서, 사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모아놓은 데이터 저장고를 말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기록관·전시관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아카이브> 역시 요셉의원과 선우경식 원장의 발자취를 되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시·소개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담당한 신혜림 기록관리팀장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활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요셉의원의 설립이념과 이를 몸소 실천한 선우경식 원장의 헌신적인 삶을 알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축된 재단 아카이브는 선우경식 선생 편을 시작으로 외연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 팀장은 “앞으로 새로 발굴되는 선우 선생 자료를 비롯해 선우 선생 선종 뒤 요셉의원을 이끌어오신 분들과, 그 정신을 함께한 필리핀 요셉의원 설립자 등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도 보강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하면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요셉의원의 개설 준비 시기 자료를 포함해 신림동, 영등포 시기의 자료와 선우경식 원장의 사진과 유품 등 여러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다 +.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아카이브 웹사이트 <https://archivecenter.net/josephclinic>

* QR코드로 바로가기



① 디지털 아카이브 둘러보기

첫 화면 상단 메뉴의 순서에 따라 ‘아카이브 소개’, ‘소장 기록물’, ‘포스트’, ‘인물·조직 정보’, ‘언론보도’ 페이지를 이미지와 함께 간략히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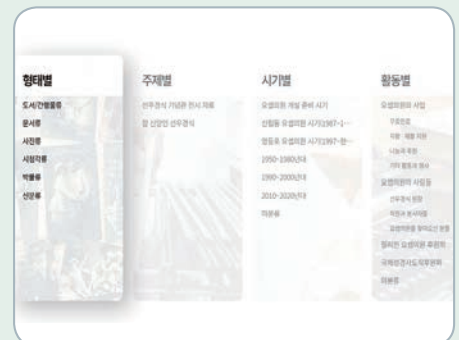
① 메인 페이지



[그림 1] 선우 원장의 모습이 담긴 첫 화면



[그림 2] 대표 등록 기록물



[그림 3] 기록물 분류 체계



② 아카이브 소개

아카이브 소개 페이지에서는 요셉의원과 선우경식 원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병원 연혁과 선우 원장의 연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료 기증 게시판이 있어 게시판을 통해 자료 기증을 신청하거나 직접 파일을 올려 요셉나눔재단 디지털아카이브(기록물관리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요셉의원과 초대원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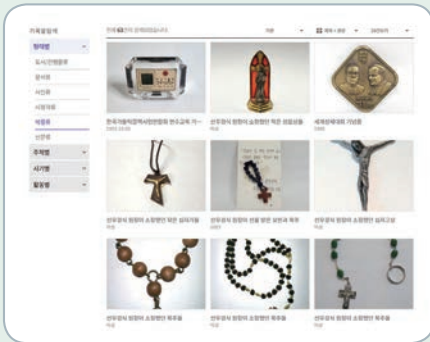
[그림 5] 자료 기증 게시판

③ 소장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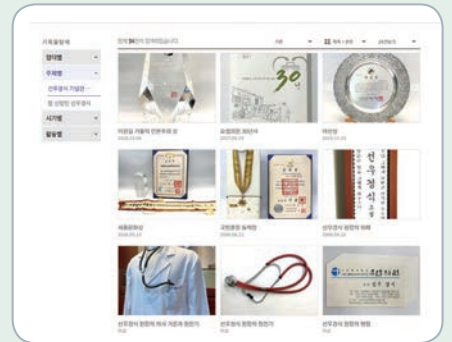
기록물을 형태별 · 주제별 · 시기별 · 활동별로 구분하여 탐색할 수 있다.



[그림 6] 형태별 분류에서 탐색한 사진 자료들. 요셉의원과 선우 원장을 비롯하여 본원에서 열린 각종 행사와 본원을 방문한 여러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7] 형태별 분류에서 탐색한 박물 자료들. 십자가, 성상, 목주 등의 성물과 청진기, 혈압계, 낚은 가방 등 선우 원장이 남긴 다양한 유품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8] 주제별 분류에서 탐색한 선우경식 기념관 자료들. 본원 2층 선우경식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④ 포스트

포스트 페이지는 '선우 원장의 말 · 글 · 생각들'과 '선우경식 이야기'라는 두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선우 원장의 말 · 글 · 생각들'에는 요셉의원 소식지나 월간지 <착한이웃>, <평화신문> 등에 실린 선우 원장의 글을 모아놓았다. '선우경식 이야기'에서는 선우 원장의 삶을 다양한 기록물을 곁들여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그림 9] 포스트 '선우경식 이야기'

⑤ 인물 · 조직 정보

인물 · 조직 정보 페이지는 간략한 용어사전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요셉나눔재단 및 요셉의원과 관련된 인물, 기관, 단체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그림 10] 인물 · 조직 정보

⑥ 언론 보도

언론 보도 페이지에는 언론에 소개된 요셉의원 소식과 봉사자들에 관한 기사를 모아놓았다. '기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이동하여 기사 원문을 읽어볼 수 있다.



[그림 11] 언론 보도 - 언론에 비친 요셉의원



KBS1TV 다큐온, 본원 진료 현장 방영

KBS1TV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25분에 방영하는 다큐온 프로그램 4월 20일자 방송편에 본원의 진료 현장이 소개됐다.

‘거리의 슈바이처, 거기 그대가 있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번 프로에는, 가난한 외국 의료사각지대에서 무료 안과 진료를 하는 봉사팀에 이어, 본원 고영초 원장의 쪽방촌 방문 진료와 신완식 전 원장 및 김정식 원로 치과봉사와의 환자들의 인터뷰가 방영됐다.

정년을 수 년 앞두고 명예퇴직 한 뒤 15년 동안 본원 의무원장과 병원



장으로 헌신한 신완식 박사는 “환자들과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지 않는다”며, “후배

의대생들과 만날 때는 ‘나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를 꾸준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본원 개원 초부터 37년 간 치

과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 김정식 봉사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보람이라서 아직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 선생 16주기 맞아 올대리 묘소 참배



본 재단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자 8명은 4월 18일 오전 선우경식 선생 기일을 맞아 경기 양주시 장흥면 올대리 묘소를 방문해 연도를 올리고, 가난한 이와

함께한 고인의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고 원장은 지난해 본원에 도입된 의료정보시스템(OCs와 EMR)의 성공적인 정착과 방문 진료 실시 등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선우 선생께 고하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선우 선생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도 덧붙였다.

영등포구 약사회, 유산균 등 영양제 전달



영등포구 약사회(회장 이종옥)는 4월 5일 디오니 헬스케어(대표 김성호)와 함께 본원에 300만 원 상당의 진유 프리미엄 유산균 30박스(박스당 60

포)를 기증했다. 이 유산균은 기능성 성분 4종(유산균, 셀레늄, 아연, 비타민)을 포함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대장까지 작용함으로써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원은 이 제품을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주님만찬 성목요일 세족례 거행



지난 3월 28일 주님만찬 성목요일을 맞아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 및 황보신 이 약제팀장 수녀는 지난해 새로 취임한 고영초 병원장

과 재입사한 정운식 기획실장 및 유종희, 최연옥, 김정애, 정버리 신입 직원의 발을 씻어주는 ‘발씻김 예식(세족례)’을 거행했다. 세족례는 예수님이 다가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한 데서 유래한다. +

알림

‘이 시대 소외된 사람들의 아버지, 선우경식 선생님’ 심포지엄 개최

— 가톨릭대 의대 개교 7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13시 30분~17시 00분

발표 주제 : ‘영성가로서의 선우경식’ / ‘제도와 의료의 빈 자리를 메우다’
‘보건복지 측면에서 본 요셉의원’

‘선우경식 선생의 삶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평가’

주 최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요셉나눔재단법인

주 관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과

봉사자·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쪽방촌 향기

‘소외된 이웃과 위급한 생명 보살피기’

“업무 때문이기는 하지만 늦게 도착하곤 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대신 더 열심히, 편하게 환자분들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녁 6시 30분입니다. 슬슬 병원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늦어도 45분에는 출발해야 요셉의원에 7시 30분 이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때문이기는 하지만 늦게 도착하곤 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대신 더 열심히, 편하게 환자분들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지하철에서 읽을 책 한 권 들고 병원을 나서면 마음이 또 급해집니다. 지하철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또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야심차게 책을 펴서 읽다보면 항상 졸립습니다. 그래도 요셉의원에 갈 때는 잠을 참으면서 책을 읽고 갑니다. 줄다가 영등포역을 지나치면 완전히 지각이니까...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는 졸리면 잠깐 잠을 잡니다. 자다가 내릴 역을 놓쳐도 좀 떨어진 역에서 내려 집을 향해 슬슬 걸어가거나, 혹은 다시 되돌아와도 선선한 저녁시간의 여유가 좋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의 단점은 저녁식사가 너무 늦어져서 배가 고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기현

본원 비뇨기과 봉사의
라임비뇨의학과 신당점 원장



격주 금요일마다 요셉의원에 가는 나의 일상 모습입니다. 퇴근 시간 동료 시민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대학 의료봉사동아리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봉사할 지역이나 대상 시설을 찾기가 어려웠던 점입니다. 훗날 공보의 시절에 보니 먼 단위에

도 전문의 선생님들의 개인병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급성중증질환의 경우 시골이나 중소도시에는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셉의원처럼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의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위급한 생명을 보살피는 필수의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제도도 간절히 요구됩니다.

이런 기대를 하며,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

환자스토리



알코올 의존 딛고 일자리 구하는 장동규 환자

“자식들에게 정은 못 줘어도, 몇 푼이라도 남겨줘야죠”

“아내가 젓먹이를 떼어놓고 나가 애들을 누님집에 맡겨 키우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서 몇 푼이라도 남겨줄 생각입니다.”

의료수급자로 2주마다 한 번씩 본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장동규 환자(66). 장 씨는 쪽방촌 여러 노숙인처럼 외롭게 살아가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떨어져 살아온 자식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다. 한 때는 젓먹이 아들을 2년 동안 회사

에 데리고 다니며 키우기도 했으나, 어느 덧 얼굴 못 본 지가 30년이 넘어 만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은 고교 졸업후 신문보급소 일을 하다 지금은 보급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두 살 위인 딸은 동생과 있으면서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들었다”며, “애비가 몸도 시원찮은데다 가진 것도 없어 만나면 오히려 폐가 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서울이 고향인 그의 가족은 가장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종로구 낙원동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하며 4남매를 키웠다. 장 씨는 가정형편상 대학까지 갈 수 있었으

나 ‘공부하기가 싫어’ 중학교를 중퇴하고 어머니 식당 일을 도왔다. 모친이 노환으로 식당을 그만둔 뒤에는 친척의 소개로 경기도 미사리에서 비닐하우스 상추재배를 했다. 그때 중매가 들어와 결혼을 하고 딸과 아들을 뒀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미사리에서 나와 서울 도심에서 분식집을 하다 적자가 나 1년 만에 접고, 그 와중에 아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던 아내는 전에도 걸핏하면 어린 자식들을 두고 집을 나가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딸은 큰누님에게 맡기고, 젖먹이 아들은 직장업고 다니며 일을 했으나 너무 힘에 부쳐 작은누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양육을 부탁했다. 이후 그는 지방에 있는 돼지농장 등을 전전하며 조금씩 번 돈을 가끔 작은누이에게 전하기도 했다.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일꾼들과의



갈등도 있을 겸해서 술을 많이 먹다 보니 번 돈은 술값으로 다 나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과음으로 이가 빠지자 음식을 씹지 못해 수년 전 본원에서 틀니도 했다. 결국 지난해 초에는 돈도 다 떨어지고 뼈만 앙상한 몸으로 영등

포 복지시설인 보현의집으로 들어갔다. 2년 여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알코올 치료병원에 다닌 그는 다행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제 모습을 돌아보니 스스로가 용납이 안돼서 보현의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기거하며 직업안내소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한 아버지만 애들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성공률이 매우 낮은 금주의 벽을 넘은 장 씨. 언젠가는 자녀들 앞에 당당한 아빠로서 모습을 드러내리라 기대해 본다.” +

봉사자 코너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접수하는 주화령 봉사자

“요셉의원 환자들 보며 사회복지 공부도 시작했어요”



본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는 주화령 봉사자는 이제 의무기록실의 베테랑 일꾼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김정순 의무기록팀장(오른쪽)과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

본원에 봉사를 오는 분들은 여러 계기에 의해 본원을 찾는다. 친지의 권유를 받거나, TV나 인쇄물 등에 소개된 내용을 보기도 하고, 교회 신심단체나 학교 동아리 봉사활동

의 하나로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

매주 금요일 낮에 본원 1층 의무기록실에서 접수 봉사를 하는 주화령 봉사자는 3년 전 EBS 명의에 소개된 요셉의원의 활동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돼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의 실상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양지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길로 본원 자원봉사팀에 전화를 해서 ‘어디든 좋으니 병원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해달라’ 말했고, 이듬해인 2022년 1월부터 봉사를 나오게 됐다. 그동안 봉사 경험은 성당 주일학교에서 간식 봉사한 게 전부였지만, 2년이 된 요즘은

의무기록실의 베테랑 일꾼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그가 하는 접수 업무는 진료받을 환자의 예약 여부 등을 체크해 안내하고, 상담실을 거쳐 처음 오는 환자에게 진료카드



통계학과 출신으로 대기업 전산실에 근무했던 주 봉사자는 특히 컴퓨터나 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생기면 단골 해결사 노릇을 한다.

를 발급하는 일 등이다. 통계학과 출신으로 대기업 전산실에 근무했던 그는 특히 컴퓨터나 프로그램 관련 일이 있을 때는 단골 해결사 노릇을 한다. 지난해 5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며 의무기록실에서는 종이 의무기록지 대신 전자차트를 사용하게 됐다. 이때 종이 기록지를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데 주 봉사자도 맘을 좀 흘렸다.

“당시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을 비롯해 현장 실습 나온 신학생들과 봉사자들이 3주 동안 오래 묵은 종이 차트를 2년치만 남기고 대거 정리하느라 수고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가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인생의 출발선이 달라서 미안”

봉사를 나오게 된 계기도 그렇거니와, 주 봉사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에 대해 늘 미안하고 빚진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생에서의 출발선이 달라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만 하다는 것.

“언젠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어떤 여자가 머리를 다쳐서 오신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단지 가정환경으로 인한 삶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고의 삶을 살아온 안타까움이 무척 가슴 아팠어요. 요셉의원에 나와 여러 환자들을 접하면서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제 시야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주 봉사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회의 그늘에서 숨죽여 사는 가난한 이들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면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과목을 다 끝내고 실습을 나가본 다음 상담이나 대면 봉사 등 어떤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지도 알아볼 참이다.

의무기록실에서 접수를 하다 보면 여러 환자들을 접하게 되지만, 환자들이 빨리 진료실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긴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요셉의원

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곤 한다. 우리가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는 요즘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자분들 중에는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는 분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셉의원이 사랑방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곳에 오면 샤워나 이발도 할 수 있고, 내의나 겹옷도 얻을 수 있는데다 진료와 약 처방은 물론 날짜에 맞춰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정부든 어디든 외부와 협력해서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도 기회되면 봉사에 나설 계획”

주 봉사자도 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의 한 사람이다. 출산 후 10여 년 동안 자녀를 키우다 4.5년 전부터 경력을 살려 코딩 교육에 뛰어들었다. 몇몇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코딩 강사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로 초중고교 등 코딩 강의를 요청하는 곳에 교육을 나가고 있다.

“코딩 하면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떠올리는데, 요즘 초등학교 정도에서의 코딩은 프로그래밍을 한다기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레고처럼 블록 쌓듯 조립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강의를 받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감사하지요.”

이 코딩 교육은 지방에 계셨던 친정어머니 병 구원을 하면서 지쳐있던 자신을 추스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른 나이에 ‘의미 치매’라는 병에 걸리신 지가 이제 9년 차인데, 4.5년 전부터 거동도 못 하시고 의사 소통도 안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까지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가 코딩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됐습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남편도 봉사에 관심이 많다. 천문학도로 관측 일을 하다 현재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은 아내가 먼저 봉사 일을 하면 자신도 해보겠다는 다짐을 준 상태다.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큰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작은 딸 등 두 딸을 두고 있는 그는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자신만의 문제를 넘어 이웃을 생각하고 살펴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스스로 결정해서 봉사를 나오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본보기여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후원의 손길



세종시 성프란치스코 성당 하상회, 단식 대금 모아 후원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하며 성금 모았습니다”



올 사순시기에 단식을 해서 모은 성금을 본원에 기탁한 세종시 성프란치스코 성당 하상회 회원들.

충남 세종시 성프란치스코 성당 하상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6일 이번 사순시기에 두 끼를 단식하고 모은 23만 원을 본원에 후원했다.

김태섭(안토니오) 하상회 회장은 “예수님의 수난을 되새기는 사순시기를 맞아 단식에 참여한 회원 12명이 두 끼 식사를 후원금으로 모아 가난한 노숙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요셉의원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순시기란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전례 시기 중 하나로, 예수 부활 대축일 전 40일 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참회와 희생, 극기, 회개와 기도으로써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일컫는다. 이렇게 극기와 희생

을 통해 모은 귀한 성금을 세종시에서 멀리 떨어진 요셉의원에 기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언젠가 TV에서 요셉의원이 가난하고 소외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돕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링크를 회원들에게 보내면서 요셉의원 후원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흔쾌히 동의해주셨어요.”

성프란치스코 성당은 세종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당으로, 앞으로 신축할 성베드로 성당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헌금이 큰 과제인데, 하상회 회원들은 건축 헌금에 앞서 ‘이웃 사랑’을 택한 것.

30대 청년 모임인 하상회는 회원 수가 20여 명 정도다. 일요일 오후 5시 청년미사에서 독서와 미사해설, 성가 등 전례를 맡아 미사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가운데 남녀가 반반이고 전체의 3분의 1은 기혼, 3분의 2가 미혼이어서 미혼 남녀 간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때, 남녀 청년 모임이 활성화한다는 건 성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로 생각된다”며, “저도 성당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5월에 새로운 부부 회원이 탄생한다”고 귀띔했다.

하상회 회원들은 매주 저녁 미사를 통한 모임 외에 해마다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하며 영성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도 미래의 교회를 이끌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고 밝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후원의 손길



20년 동안 본원 후원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사랑의 기금’

‘십시일반의 후원금으로 노숙인 진료 지원’

우리나라 교육의 현안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후원·봉사 모임인 ‘KEDI 사랑의 기금’에서 20년 동안 본원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와,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

들을 위한 진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기금의 요요섭 간사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진료하고, 옷이나 이발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요셉의원과 봉사자들의 활동이 우리 기금이 지향

하는 바와 같아 후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EDI 사랑의 기금’은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 안에 ‘사랑의 기금’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



2004년 'KEDI 사랑의 기금' 운영위원 4명이 당시 선우경식 원장을 찾아와 면담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왼쪽은 김장 담그기 봉사를 하는 회원들.

후원이나 물품 후원, 자원봉사 인원이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단체를 찾아 직원들이 나서서 지원하고 봉사하자는 취지였다. 기금이 설립된 그해 운영위원 네 명이 영등포 요셉의원을 직접 찾아와 당시 선우경식을 원장을 면담했다.

“운영위원 네 분이 요셉의원 선우 원장님과 만나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진료실과 약제실, 임상병리실, X선 촬영실, 샤워실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의원의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한 뒤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본원에 한 번이라도 후원한 사람이 1,200명 정도여서 지금의 4,000여 명에 비해 숫자가 크게 적었다. 따라서 'KEDI 사랑의 기금'으로부터 연간 300만~400만 원의 지원은 병원 운영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사랑의 기금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약정서를 받아, 연간 후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원을 포함해 6개 기관이 도움을 받았다.

'KEDI 사랑의 기금'에서는 후원 이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함께 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오

요섭 간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서울 서초구에서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뒤, 진천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평화선교복지회에 매년 두 번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5월에는 텃밭 정리를 돕고, 하반기 11월에는 김장 담그기 자원봉사를 했다”고 전했다. 오 간사는 이어 “모두들 업무가 바빠데도 불구하고 매번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후원금도 흔쾌히 건네주는 직원들을 보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후원과 봉사가 남에게 주는 만큼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요셉의원에 기부금만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나, 기회가 되면 뜻있는 직원들과 함께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도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4년 2월~3월)



■ 요셉나눔재단

● 강삼석 ● 강아라 ● 고희주 ● 권미연 ● 김금재 ● 김동현 ● 김민정 ● 김미숙 ● 김보민 ● 김영순 ● 김영희 ● 김예은 ● 김용찬 ● 김유진 ● 김재훈 ● 김정주 ● 김주영 ● 김주영 ● 김창일 ● 김효정 ● 김희진 ● 나충렬 ● 마틸다 ● 문금봉 ● 박경서 ● 박경실 ● 박미영 ● 박세현 ● 박정일 ● 배성미 ● 백영옥 ● 서석호 ● 서원희 ● 서원희 ● 송승완 ● 송승흥 ● 신동엽 ● 신상은 ● 신선향 ● 신찬주 ● 안기현 ● 어원준 ● 염정희데레사 ● 오용석 ● 유영창 ● 유호진 ● 윤지현 ● 이갑수 ● 이경은 ● 이기화 ● 이길한 ● 이두나 ● 이상용 ● 이서경 ● 이소연 ● 이수민 ● 이수혁 ● 이영묵 ● 이재선 ● 이정인 ● 이정현 ● 이종은 ● 이지민 ● 이지수 ● 이태규 ● 인서희 ● 임도현 ● 임동건 ● 장동우 ● 장수진수산나 ● 전영일 ● 전은환 ● 정금화 ● 정명호 ● 정수경 ● 정 승 ● 정영지 ● 정영희 ● 정정자 ● 정주원 ● 조성품 ● 조승일 ● 조용수 ● 조윤지 ● 조인숙 ● 조인주 ● 조혜성 ● 조희정 ● 최덕치 ● 최미숙 ● 최영란 ● 최현호 ● 한대용 ● 한동호 ● 허은진

■ 요셉의원

● An Jung Woo ● 강세나 ● 경지혜 ● 구미정 ● 금민아 ● 김경호 ● 김난희 ● 김명숙 ● 김미정 ● 김미현 ● 김민희 ● 김시연 ● 김우경 ● 김윤지 ● 김은성 ● 김은영 ● 김정현 ● 김정희 ● 김진주 ● 김찬중 요한 ● 김태민 ● 김현곤 ● 노지수 ● 류덕순 ● 박고은 ● 박규리 ● 박미향 ● 박성식 ● 박성희 ● 방윤재 ● 배은 ● 배주희 ● 백시영 ● 봉윤정 ● 손지연 ● 손혜진 ● 신경옥 ● 신석현 ● 신야고보 ● 신희준 ● 안현지 ● 양성모 ● 양재훈 ● 양진용 ● 오윤빈 ● 오정남 ● 유혜인 ● 윤경희 ● 이동호 ● 이성은 ● 이소영 ● 이영자 ● 이원아 ● 이원희 ● 이은석 ● 이정균 ● 이현우 ● 이해섭 ● 임광희 ● 임지원 ● 장 효 ● 정복성 ● 정정윤 ● 정희수 ● 조병남 ● 조부덕 ● 조수빈

- 조연실 ● 조종경 ● 조현아 ● 차준원 ● 최은정 ● 최자경 ● 최재영
- 최주연 ● 최주옥 ● 최혜정 ● 한웅선 ● 한지선 ● 한혜준 ● 한희정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4년 3년 2월~3월)

■ 요셉나눔재단

- (주)아모레퍼시픽 ● (주)제이드크로스 ● KBS샘터회 ● 도림동성당
- 신한투자증권 ● 가톨릭신우회 ● 영도교회3남선교회 ● 토론토프란치스코재사회

■ 요셉의원

- (주)엘스케이 ● 분당성루카성당 ● 세종성프란치스코성당-하상회
- 수락산성당 ● 재단법인 세령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4년 2월~3월)

- 가톨릭출판사 : 과일함세트 1상자 ● 강신걸 · 김선화(피스오브헤븐) : 유기농밀롤케이크 1상자, 수제 카스텔라 124봉지 ● 김종덕 : 오렌지 6상자(120개)
- 김채경 안나 : 쌀 20kg ● 대방동성당 황산연라파엘 : 삼육두유 5상자(100팩)
- 우봉근니콜라오 : 쌀 10포(200kg) ● 윤현지 : 카스텔라 200개 ● 이길한 : 한과 1상자 ● 익명 : 쌀 120kg ● 장윤갑 : 떡 1상자 ● 최종옥 : 하귤 2상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 일동 : 혼합과일 4상자 ● 한몽술 : 빵 2상자 ● 민병전 : 비타500 4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4년 2월~3월)

- 권정* (강서구) : 의류 1상자 ● 김덕한 : 운동화 6켤레 ● 민* 근(안산시) : 의류, 패션잡화 1상자 ● 박은경 : 의류, 신발 등 2상자 ● 오* 우(구로구) : 의류 1상자
- 오* 희(인천) : 의류 2상자 ● 원* 희(목포시) : 의류 3상자 ● 유하균 : 양말 20켤레 ● 윤* 경(안산시) : 의류 2상자 ● 이정은 : 의류 1상자 ● 이종건 베드로 : 의류, 신발 8상자 ● 전* 연(종로구) : 의류 1상자 ● 정* 관(진주시) : 의류, 패션잡화 1상자 ● 홍원주 : 모자 7개 ● 황재* (용인시) : 의류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4년 2월~3월)

- 동아제약 : 마그라비 ● 삼성약국(최영순 약사) : 코로나 자가 검사키트 30개
- 엘스케이 : 오메가-3 ● 하나제약 : 레나신 외 21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4년 2월~3월)

- 박천수 : 생활잡화 1상자 ● 서* 력(파주시) : 의류잡화 1상자 ● 이백용 : 손소독제 5통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신규 입사자

- 의료사업실 치과팀 :
치과위생사 신기영(3월 1일)
박소연(3월 15일)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김 한바로(일반외과)
이영인(가정의학과)
강한솔(영상의학과)
- 간호사 : 김혜민
- 약 사 : 안은선 김재희
- 음악치료 : 민미호
- 상담팀 : 허정연
- 신학생 현장체험 :
청주교구 박민수(가밀로 2/26~5/24)
광주대교구 류동제
(그레고리오 3/4~6/30)
수원교구 박제준(스테파노 3/27~6/26)
윤수영(이냐시오 3/27~6/26)
- 일반 봉사 :
[간호팀] 김해정 이현정 황경미(한외과보조)
[약제팀] 덕성여대 10명 숙명여대 2명
이화여대 1명 동국대 1명
[치과팀] 주현정
[청소봉사] 중앙대 로타렉트 23명
[이미용 봉사] 윤태훈 이지영 최미순
[목요급식봉사] 도림동성당 8명
[아웃리치] 도림동성당 9명, 연대의청 9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김동길 ● 파팀(코트디부아르)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4년 2월	1,343명
2024년 3월	1,455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4년 3월 말 현재)

750,459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2~03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부활을 기뻐하는 장학생들의 환호성 울려 퍼져



부활대축일을 기념해 필리핀 요셉의원 강당에서 치러진 부활맞이 행사에 참석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활 선물을 안고 포즈를 취했다.

생명을 향한 운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듯, 이날 강당은 어느 때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미사에 이어 장학생들은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놀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장학생들은 조별로 대표를 뽑아 줄넘기, 농구공

알렐루야! 전례 주년의 정점인 주님 부활 대축일. 지난 3월 31일, 필리핀 요셉의원은 부활 대축일을 기념해 본원 강당에서 미사와 부활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강당은 주님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고자 모인 장학생, 학부모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장학생들은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미사 중 강론을 통해 김다솔(야고보) 원장 신부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으로 우리 죄가 대신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넋기, 단어 맞추기, 사람 찾아오기 놀이를 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놀이에 참여하는 이들도, 구경하는 이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하하 호호' 웃으며 즐거워했다. 특히 단어 맞추기 놀이에서 장학생들은 단어를 맞춰야 하는 모둠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둠원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정답을 함께 찾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학생들을 이끄는 선생님들도 모든 어린이가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부활 계란 꾸미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전 놀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계란에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만드는 부활 계란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마르 9,50)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보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줄 선물을 직접 꾸몄다.

장학생들은 부활을 축하하는 계란을 예쁘게 꾸미며, 저마다 나누어줄 이들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의 기쁨은 장학생들을 통해 필리핀 요셉의원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활을 축하하는 계란꾸미기에 그림을 그리는 등 예쁘게 장식하고 있는 중고교 장학생들.



복음 묵상

“하느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작은 일 안에서부터 하느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의 하루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건물 관리, 직원 관리, 현지 교구의 회의 참석 등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4일씩 정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사와야 한다든지, 수압



이 약해서 씻을 수 없을 때도 있고, 인터넷이 일주일씩 안되거나, 고장 난 문고리를 고쳐야 하고, 온갖 벌레도 잡고 병원 내의 개나 고양이, 염소까지 신경 쓰게 됩니다. 외부인이 병원 안에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쓰레기를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도 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

2024년 첫 신학생 실습 시작



오는 7월 초까지 4개월 간 필리핀요셉 의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이윤석 라파엘(왼쪽), 이범상 사도요한 신학생.

지난 2월 26일, 두 명의 한국 신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위해 필리핀 요셉 의원에 도착했다. 이번에 배정된 이범상 사도요한 신학생과 이윤석 라파엘 신학생은 군 제대 후 수련의 해를 맞아 해외 선교 실습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실습, 주택 지원 사업을 위한

빈민 가정 방문, 식료품 지원 사업 실습과 함께, 의료 봉사팀이 방문하면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신학생들이 이곳의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어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두 신학생은 7월 초까지 대략 4개월간 이곳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곡2동 성당 출신인 이윤석 라파엘 신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분투하는 필리핀 요셉 의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러 삶의 모습을 체험하고, 예수

님의 사랑과 나눔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필리핀 은퇴 사제 방문 진료

필리핀 요셉의원은 은퇴 사제 및 수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봉사’를 마련했다. 지난 4월 3일, 따카이파이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뒤 두 번째로 치러진 행사였다. 이 봉사에는 본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4명, 실습 신학생 2명을 비롯해, 본원 인근 본당(Sacred heart of Jesus parish) 봉사자 10명이 함께했다.

진료 대상은 은퇴 성직자 및 수도자 51명이었다. 진료팀은 치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강당에서 마사지, 오일 테라피, 전기 치료 서비스도 실시



은퇴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모습.



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 특성상 한국인은 저 혼자이고 제가 최종적으로는 세세한 일까지 보고받고 판단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밀려드는 일감의 파도 속에서 매 순간이 판단의 순간이고 매 사건이 도전이곤 했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몸과 마음이 한없이 지치게 되었지만 성찰 안에서 일상을 돌아보면 모든 일들은 하느님께서 보내 주시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저의 의지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필요한 일이라도 잘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 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원장이라는 자리의 권한과 책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을 던져주셨

습니다. 그 일들은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서 보면 저를 위대한 목표로 안내하는 작은 이정표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쉽지가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분명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작은 일 안에서부터 하느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 앞에서 투덜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길이 안배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합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했다. 은퇴 사제인 크리스(Cris) 신부는 다음과 같이 의료 진료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신 것처럼, 봉사자가 우리 은퇴 사제를 찾아와 치료해



방문 진료팀의 치료 진료 장면.

주었습니다. 직접 찾아온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뇨 및 혈압 약 제공, 치과, 마사지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은 앞으로도 매년 은퇴 사제를 방문해 진료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 2024년 2월 ~3월 신규 후원회원(11명)

- 김지원도мина ● 김혜경 ● 방성임
- 한진석(알프스메디콤) ● 이두구 ● 이영목 ● 이효정
- 익명기부 ● 장기영 ● 정현주 ● 조옥순

+ 2024년 2월 ~3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2,403명 ● 급식 1,081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4년 3월 현재)

- 진료 98,095명 ● 급식 490,588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4.02~03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간절히 필요한 책을 얻게 돼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아공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서적 2차 지원



신학교 성당에서의 전례 모습(왼쪽). 오른쪽은 전시된 책을 살펴보는 신학생들.

국성회에서는 남아공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신학생들이 각자 필요한 신앙서적을 소지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1차로 2023년 8월 15일~17일, 2차로 2024년 3월 12일~14일에 신학교 강의실에 책을 전시했다.

신학생들은 이 전시된 책 가운데 각자 1,000랜드(한화 7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필요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이들은 1차 때의 경험을 살려 2차 때에는 더욱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책을 골랐다.

이 책들은 바오로딸 수녀회에서 신학생들이 원하는 책 제목을 모은 다음 국성회의 후원을 받아 외국에서 수입한 뒤 이곳 신학교로 가져왔다.

바오로딸 양은오(체사리아) 수녀는 지난 3월 30일 이번 도서 지원을 마무리하며 느낀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다.

‘도서 지원을 마무리하며’

남아공에서 유일하게 교구 사제 양성을 하는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학생들에게 선사한 1, 2차 도서지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국성회 회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프로젝트는 매 순간순간이 은총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사목 실습 중인 신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신학생들이 골라 둔 책꾸러미들.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가져간 책들을 여러 컷의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다른 신학생을 통해, 또 다른 신학생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목 현장에서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준비해주는 일은 색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사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베풀어진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남아공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전 가톨릭 교회와 함께 나눈 기부였습니다.

국성회 회원 한 분 한 분께 다시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시는 좋은 지향의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2024년 3월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양은오 체사리아 수녀(바오로딸수녀회) 드림

☞ 2024년 2월 23일 남아공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도서관과 신학생들을 위한 신앙서적을 2차 후원하였습니다. (총 115,876랜드=8,250,000원)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 서한집도 배포



김대건 신부 서한집과 이 서한집을 PDF 파일로 담은 USB 장치.

국성회에서는 성 김대건 신부 서한집(영문)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 서한집(영문)을 준비해 국성회의 이름으로 이곳 신학교 교수 신부와, 신학교 도서관, 주교, 수도사제 양성 도서관, 수도회 양성 담당자들에게 50부를 배부하였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멀고 잘 알려져 있지 않듯이, 남아공에서도 한국 교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 교회를 소개하고자 준비한 것이다.

성 김대건 신부님 서한집은 현재 품질 상태여서 종이책을 구하지 못해,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보급용으로 배포하는 성 김대건 신부님 서한집 pdf 파일을 USB에 담아 준비했다. +

[선교 현장에서] 방앗간에서 찾는 생각의 물꼬 – 모잠비크 선교 유가별 신부

‘나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거의 1년을 준비해 본당 방앗간을 개장하였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쓸 일도 많았다. 일을 괜히 시작한 건 아닌지 후회하기도 했다. 본당 재정 자립이란 목표 하나를 위해 모든 수고를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 선교사 본당 신부 입장에서 봤을 땐 굳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나에겐 필수불가결한 이유는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이유와 구체적인 목적이 결여된 일은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후회하고 회의감으로 과거를 원망하기도 한다. 목적이 나와 크게 상관없는 추상적인 대

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 방앗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본당 재정 자립이란 거창하고 추상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안 그래도 돈이 없고 배고픈 시기



성당 옆에서 수도자 및 교우들과 함께.



방앗간에서 도정한 곡식을 앞에 놓고 포즈를 취한 현지민들.



동안 우리 본당 방앗간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동네 방앗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도정할 수 있는 우리 본당 방앗간은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단 돈 몇 백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라타 당(1/3 가마) 10메티칼(200원) 이상의 차이는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이다. 본당 방앗간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방앗간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말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보조하고자 이 방앗간을 운영해야 한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다. 선교사 본당 신부가 이 본당에 있는 한, 방앗간은 본당 재정 자립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다른 방앗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며칠 전, 과거 공소 회장이었던 형제 한 명이 몹시 위중하여 병자성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사인은 기

아로 인한 건강 악화였다. 급하게 이곳의 주식인 옥수수 반 가마를 챙겨 병자성사 채비를 꾸려 떠났다. 내가 왜 본당에서 카리타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제공하는지 가장 강렬하게 그 이유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좋은 지향으로 어렵게 옥수수를 구입했지만 그보다 더 어렵게 매일 같이 옥수수를 분배하다 보니 사실 많이 지치곤 했다.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사목보다 카리타스 활동이 더 우선이 된 것 같았다. 시도 때도 없이 사제관을 찾아드는 사람들을 마주하지 회의감이 들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어느덧 나에겐 귀찮은 일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앞서 말한 이전 공소 회장의 경우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필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선한 지향은 확실한 목적을 앞설 수 없다. 확실한 목적은 경험에서 발견된다. 이상적인 계획은 경험에서 비롯된 목적 앞에 그 한계를 드러낸다. 바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말이다. 최근 방앗간의 경우와 전 공소 회장 형제의 경우는 아프리카 땅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인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책으로는 알 수 없고,



유기별 신부가 모잠비크 사목 현지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이상적인 지향으로는 더더욱 도달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선교사 수업이었다. 이 두 경험이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킬 것이다. 그렇게 진정한 선교사가 되어가는 중이다. +

☞ 2021년 9월 8일에 모잠비크 리칭가 교구를 위한 마쿠아어(모잠비크 주요 부족어) 교리서 1만권, 기도서 및 성가집 1만권 인쇄 및 컨테이너 운송비용 114,15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성희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4년 2월~3월)

● 강석철 ● 고도원 ● 고동현 ● 고현수 ● 고현주 ● 곽효민 ● 구민영 ● 김경준 ● 김광자 ● 김금재 ● 김덕순 ● 김명숙 ● 김명희 ● 김미현 ● 김범준 ● 김병희 ● 김상숙 ● 김선옥 ● 김성권 ● 김수미 ● 김수현 ● 김신호 ● 김애자 ● 김여진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숙 ● 김은주 ● 김정임 ● 김정화 ● 김진우 ● 김현경 ● 김현숙 ● 김희수 ● 나삼균 ● 노미미 ● 류연자 ● 류혜선 ● 문순자 ● 민영진 ● 박금애



- 박세희 ● 박소향 ● 박수진 ● 박순자 ● 박언빈 ● 박영훈 ● 박재우 ● 박춘옥 ● 박혜숙 ● 박효종 ● 배광익 ● 서현동 ● 손정애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해경 ● 양영실 ● 양창호 ● 염지유 ● 오세형 ● 오소연 ● 오승웅 ● 오영남 ● 오영신 ● 유승영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미순 ● 이미용 ● 이상숙 ● 이상현 ● 이용순 ● 이용애 ● 이용우 ● 이원석 ● 이일호 ● 이임득 ● 이장순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상 ● 이종환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해순 ● 이희자 ● 임한미 ● 장수진 ● 장이태 ● 전대영 ● 전명희
- 전소연 ● 전 숙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미 ● 정재숙 ● 조성미 ● 조성민 ● 조하영 ● 조현순 ● 지태근 ● 최두혁 ● 최명옥 ● 하금태
- 하상옥 ● 허 근 ● 허봉희 ● 허순덕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주 ●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4년 2월~3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서상범 ● 신현박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이철희 ● 임상무 ● 정순택 ● 조성풍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4년 2월~3월)

- 강은영 ● 강화정 ● 고일성 ● 곽순용 ● 곽혜숙 ● 구경모 ● 김경옥 ● 김경희 ● 김기연 ● 김동화 ● 김명신 ● 김석주 ● 김성중 ● 김정연
- 김진숙 ● 김태규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효순 ● 김효섭 ● 도성록 ● 류지한 ● 박병윤
- 박성하 ● 박지영 ● 박창희 ● 박향순 ● 박화영 ● 배보윤 ● 배소영 ● 배창희 ● 백영희 ● 사공일 ● 서효리 ● 서희자 ● 석남연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필숙 ● 손현채 ● 양기라 ● 엄광해 ● 엄옥진 ● 윤정희 ● 위원량 ● 이강림 ● 이강홍 ● 이건창 ● 이규성 ● 이금희
- 이보경 ● 이석재 ● 이승현 ● 이영선 ● 이영희 ● 이용순 ● 이재림 ● 이재익 ● 이주현 ● 이준호 ● 이지윤 ● 이진수 ● 이청자 ● 이학천
- 이해연 ● 이희우 ● 임선영 ● 임옥란 ● 임진수 ● 장민정 ● 장혜정 ● 전성인 ● 전유민 ● 정은주 ● 정진영 ● 조경연 ● 조무건 ● 조소연
- 조연실 ● 조주연 ● 진수은 ● 주현수 ● 최경의 ● 최서희 ● 최영연 ● 최영자 ● 최종숙 ● 한나진 ● 황현지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2024년 2월~3월)

- 박민재(미카엘)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4년 2월~3월
후원금 내역 : 13,436,000 원

2024년 5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4년 5월 14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 코린토 2 9,9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7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 (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매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장소 1층 로비(5번째 주 제외)



식사 나눔 (목요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1층 식당



옷 나눔

시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장소 1층 현관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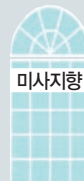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